

민주 도당 공동선대위 명칭 '#해시태그'

첫 공개회의 열고 설정 지역혁신·첫선거단 등 선대위 산하 4개단 구성

MZ세대로 구성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김성주) 공동선대위위원회가 출범 후 첫 공식 공개회의를 진행했다. 5일 오전 전북도당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공개 회의는 공동선대위위원회의 공식 명칭 발표와 함께, 선대위 산하 4개 단 구성 발표 그리고 각 공동선대위위원장의 모두발언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공동선대위원회 명칭은 '#해시태그'로 정했다. 전북도당은 다양한 분야의 대표성을 가진 전문가이자 미래세대로 구성된 공동선대위위원회가 미래세대의 특징인 변화와 다양성을 가지고, 소통하고 연결하는 해시태그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2022 대선 3대 목표를 ▲팩트만 말하는 선거, ▲제대로 일하는 선거, ▲후자 또 같이하는 선거로 정하고, 카더라가 아닌 진짜 팩트를 이야기하는 선거를 통해 네거티브로 지친 도민들이 기대할 수 있는 공정한 선거를



MZ세대로 구성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공동선대위위원회가 출범 후 첫 공식 공개회의를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만들어 주고, 선거의 핵심, 정책 반영을 통해 도민의 삶을 바꾸는 공약을 반영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이어 '#해시태그' 공동선대위원회 산하 4개단 구성을 소개했다. 먼저 '지역혁신단'에서는 "전북이 현재의 변화를 수용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가 되기 위한 노력들을 다양한 목소리와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미래인재지원단은 "지역의 혁신, 정치개혁의 목소리를 모아 예비정치인 발굴과 육성의 기틀을 마련하자"고

밝혔다. 또한 올해 첫 투표를 실시하는 2008년생들로 구성된 '첫선거단'에선 선거 투표 참여 독려 캠페인을 비롯, 청소년들이 품고 있는 다양한 고민들을 기성세대와 함께 풀어보는 간담회 등을 준비한다. 마지막으로 '#해시태그' 공동선대위원회 스피커 역할을 자처한 '대변인단'은 "단순히 논평과 보도자료를 내는데 그치지 않고 대선 관련 이슈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과 정기적인 브리핑을 통해 도민과 함께 호흡하고 소통

하는 대변인단의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각 공동선대위원장의 모두발언이 이어졌다.

김남훈 공동선대위원장(전북대학교 교수)은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많이 부족한 전북에 그린수소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그린수소산업 메카 전북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전북도당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창하 공동선대위원장(봉곡문화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은 "전북에서 정치 변화를 꿈꾸는 예비정치인들과 함께, 지역의 변화를 주도할 새로운 목소리를 지역 정치로 담아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라북도당위원장이자 공동선대위원장인 김성주 국회의원(전주시병)은 "첫 공개토론을 통해 '#해시태그' 공동선대위원회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발표됐다"라며 "이들에게 건넨 마이크를 통해 전북의 다양한 목소리를 증폭시키는 역할을 잘 수행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해시태그 공동선대위원회 마이크를 통해 나오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전북 발전에 필요한 정책으로 개발돼 이번 대선은 물론, 지속적으로 목소리가 이어져 나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송하진 도지사가 5일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전북 민선지사 최초 3선 도전

송하진 도지사 "결국 3선 의지로 가야 할 것... 도민 선택 받겠다"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3선 도지사 도전을 공식화했다. 송 지사는 민선이후 역대 전북 도지사 가운데 처음으로 3연임에 나서게 된다.

송 지사는 5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3선 도전에 대한 질문을 받고 "발표한 업무계획에도 어느 정도 암시했을 것이다. 여러 차원에서 3선과 관련한 검토를 해 왔다"면서 "결국 3선 도전 의지로 가야 할 것이고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전북지역 정가에서는 송 지사의 3선 도전을 기정 사실화 했으나, 이날 처음으로 송 지사 자신이 직접 3선 도전을 언급했다.

그는 "정책이 계속 진화하고 발전해야만 성공으로 갈 수 있다"며 "(단체장) 몇 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그 역할을 더 잘 수행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도정 운영의 책임자임을 자부했다.

또 "도정 운영은 일관된 흐름과 정책의 연속선상에서 유지되어야 뜻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끊임없이 공부하고 노력하면서 정책을 발전시키는 도지사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송 지사는 3선 출마에 따른 도민 피로감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치인의 진로 또는 운명은 주권자인 도민에게 달려 있다"며 "지금까지 해온 일에 대한 평가도 받고 미래에 대한 꿈을 밝히면서 도민의 선택을 달게 받겠다. 피로감은 신경을 잃어 아니다. 도민에게 저에 대한 선택권을 맡기겠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30% 안팎의 지지율을 보인 것에 대해 "그 부분을 제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평가를 받는 과정이기 때문에 끝까지 도민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윤준병 의원 '건축물 석면조사 사각지대 해소법' 대표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이 5일 건축물 석면조사 실시에 있어 법적 미비로 인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대상 건축물들을 모두 포괄하도록 개선하는 '건축물 석면조사 사각지대 해소법'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석면조사 건축물의 사용 개시 유형을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건축법령 외에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건축물을 사용하는 사업의 신고·등록·인가·허가 등의 절차가 완료돼 사용 가능하게 된 날을 착수시점으로 규정하도록 추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 전체가 빠짐없이 석면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해 석면으로 인한 국민건강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재건축단지 다물권자 매수 피해자 구제 '청신호'

김운덕 의원 대표발의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안'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 통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운덕 의원(전주시 갑)은 조정대상지역 지정으로 재건축단지 주택을 매입했지만, 아파트를 받을 수 없게 된 피해자 구제를 위한 대표발의의 법안이 국토교통위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김 의원은 내집 마련의 꿈을 안고 다주택자로부터 재건축 아파트 한 채를 매입했지만, 갑자기 조정대상지역 지정으로 고통의 나날을 보내는 피해자가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왔다. 이에, 김운덕 의원은 지난 2021년 5월 피해자를 구제하는 방안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과밀억제권역 외의 재건축 사업구역이 속한 지역

이 조정대상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이전에 다물권자로부터 주택 등을 양수한 토지등 소유자에 대해 매수자 각각에게 1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제 대상은 재건축추진 아파트의 다주택자로부터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아파트를 매입했지만, 권리확보가 어려워진 피해자다. 권리구제 대상은 전주시 효주주공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권리구제 대상은 전주시 효주주공 3단지, 삼천주공3단지, 세경아파트 등이며, 전국적으로 상당수가 이에 포함된다. /유호상 기자

김 의원은 그동안 국토부 관계자들과 상임위 의원들을 수차례 만나 문제점을 설명하는 등 끈질기게 노력 끝에 상임위 통과를 이끌어 냈다.

김운덕 의원은 "처음 법안을 발의하고 나서 국토부와 상임위 의원들을 수도 없이 만나며 설명했지만, 실득이 쉽지 않았다"며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논의해 지금까지도 상임위 문턱을 넘어서 다행이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아직 법사위와 본회의라는 마지막 관문이 남아있지만 곧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다"며 "끝까지 방심하지 않고 본회의를 통과 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유호상 기자

"차별없는 노동세상 최우선"

이재명 선대위 노동위 출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대위 노동위원회가 5일 전대일제단에서 출범했다.

이날 출범식은 한국노총·민주노총 전·현직 위원장과 노동존중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노동위원회 안호영 상임위원장이 참석해 차별없는 노동세상과 이재명 후보가 국정을 펼쳐 나갈 때 노동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송영길 대표는 추사에서 "2022년 3월 9일, 우리가 만들 새로운 정부는 고용의 양과 질을 개선하고, 노동 양극화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철학 있는 정부

수립과 누구나 안전하게 일하고 차별 없는 일터,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나라, 노동자 출신 대통령, 이재명 정부가 만들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안호영 상임위원장은 "이재명 후보를 통해 노동자들이 주도하는 새로운 전환의 시대를 만들어 가자"며 "노동위원회 참여자가 모두 내가 이재명이 다 라는 각오로 47 민주당부 수립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또 "전태일 열사의 뜻을 이어 우리 노동위원회가 이재명 후보와 함께 수많은 전대일들의 당연한 권리를 보장하는 노동이 존중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선봉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마스크 착용 '필수' · 감염병 의심되면 '1399'로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주매일이 앞장서겠습니다

자료: 질병관리청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 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일반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 하지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9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

전주매일 캠페인